

진주대첩에서의 김시민의 전략과 전술

姜 性 文

(육군사관학교 교수)

1. 머 리 말
2. 제1차 진주성 전투 개요
3. 김시민의 군사전략
4. 김시민의 지휘전술
5. 맺 음 말

1. 머 리 말

晋州는 경상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주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임진왜란 시에 진주는 호남의 保障地였고 호남과는 唇亡齒寒의 관계였다. 天塹의 험함을 이용한 관방시설을 통하여 고려조 이래 晉陽으로 일컫게 되었다.¹⁾ 임

1) 『高麗史』 권57, 地理志 2 晋州牧條에 顯宗 9년 진주의 別號는 晋康, 靑州, 晋陽이었다. 조선조에는 『世宗實錄』 권150, 地理志 晋州牧條에 太祖 원년에 顯妃 康氏의 內鄕이었기에 晋陽大都護府로 승격시켰는데, 太宗 2년에 진주목으로 환원되었다. 戰國時代 晋의 趙簡子の 家臣인 尹鐸이 晋陽(山西省 太原)을 맡아 善政을 베풀어 晋의 保障지가 되었다.

진년의 제1차 진주성 전투는 임란 3대첩 중의 하나로 호남을 보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이 대첩은 목사 金時敏(1554~1592)의 탁월한 용병술과 그 휘하의 관군과 의병 및 진주성민과의 합작품이었다.

진주성 전투의 실상에 관한 전말과 활동한 인물을 중심으로 일부 기록물이 전해오고 있지만 이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기존 자료들에 대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리 및 國譯事業이었고, 활동 인물에 대한 업적 평가와 사상문제가 주 쟁점이었다.²⁾ 그러나 이제 인물의 업적이거나 전투 승패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연관된 일반적인 원리를 규명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진주대첩에 관한 구체적 원인의 문제를 지휘관과 연관시켜서 검토하고자 한다.

훌륭한 지휘관이라면 그는 적군과의 전투를 구상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

趙簡子の 아들인 襄子の 즉위에 智瑤가 반란을 일으키자, 襄子가 晉陽으로 피해 왔다. 智瑤가 城을 包圍하고 水攻戰을 전개하여 城이 모두 浸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尹鐸은 끝까지 抗戰하여 勝利하였다. 金城湯池의 保障地를 晉陽으로 표현(『資治通鑑』 권1, 周紀威烈王 23년조).

- 2) 기본 문헌은 金誠一, 『鶴峰集』; 趙慶南, 『亂中雜錄』; 鄭慶雲, 『孤臺日錄』; 李魯, 『龍蛇日記』; 安邦俊, 『隱峰全書』; 李滌, 『謚狀』; 李恒福, 『白沙集』; 申昉, 『再造藩邦志』; 金時讓, 『涪溪記聞』; 金時讓, 『河潭雜記』; 朴東亮, 『寄齋史草』; 『新增東國輿地勝覽』, 『燃藜室記述』, 『海東名將傳』, 『晉陽誌』, 『懲愆錄』, 『行狀』, 『神道碑銘』, 『健齋集』,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연구 논문은 咸仁淑, 『壬亂中 泗川 및 晉州戰에 관한 考察』, 『綠友會報』 10호, 1968; 李炯錫, 『壬辰戰亂史』, 新現實社, 1976; 許善道, 『鶴峯先生과 壬辰義兵活動』, 『國譯 鶴峰全集』, 1976; 趙溪來, 『晉州城戰鬪와 金千鎰의 戰功問題』, 『軍史』 5호, 1982; 朴性植, 『壬辰亂의 晉州城戰鬪』, 太和出版社, 1991; 金康植, 『壬辰倭亂과 慶尙右道の 義兵運動』, 海安, 2001; 池承鍾, 『16세기말 晉州城戰鬪의 배경과 전투상황에 관한 연구』, 『경남문화연구』 17, 1995; 朴翼煥, 『鶴峰과 金時敏의 業績』, 『아시아문화』 12호, 1996; 姜性文, 『진주대첩을 통해서 본 김시민의 전략과 전술』, 『제1회 충무공 김시민장군 선양 국제학술지포지엄』, 2002(본 논문은 1차 진주성 전투의 내용만을 발췌·정리함).

책을 준비한 후에 결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가 치른 전투는 결코 우연에 의존하거나 혹은 自暴自棄 가운데 무모하게 치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의 장을 개설한 후에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군인은 물론하고 나아가 민간인의 생명이 바로 지휘관의 행동 명령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면 그는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일반적 전황에서는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전쟁의 승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달려 있다 하겠다.

2. 제1차 진주성 전투 개요

(1) 전투 배경

왜군의 최초 침공계획은 해상과 육상으로 병행하여 공격하는 水陸並進 전략에 의한 조선 점령이었다. 왜군은 연전연승으로 平壤에까지 진출했지만 더 이상의 북상작전이 어렵게 되었다. 明軍의 개입으로 전쟁의 擴戰이 예상되자 왜군은 명군과 휴전을 성립한 것이다.³⁾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의 활동으로 왜군의 서해상 진출이 봉쇄되자 이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왜군은 김해와 창원을 거점으로 육상으로 전라도 진입을 기도하였다. 이에 郭再祐·鄭仁弘·金沔 군대의 선전으로 왜군의 경상우도 침입을 저지함으로써 왜군의 전라도 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왜군은 7월의 閑山島 해전에서의 참패로 더 이상의 수군 작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육로로 西進하여 해안 거점과 전라도

3) 1592년 8월 30일, 평양 서북쪽 10리 지점인 降福院에서의 명과 왜 양국간의 강화교섭으로 9월 1일~10월 20일의 50일간의 잠정적인 휴전이 성립되었다.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왜군은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8월 중순부터 한성 주둔병력의 일부를 金海로 집결시키고 약탈한 물자를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운반하였다. 이러한 왜군의 동향에 대하여 경상감사 金晬는 왜군의 본국 철수로 오관해서 이순신에게 왜군의 해상 퇴로 차단작전을 명하였다. 이리하여 전라·경상 통합함대로 왜 수군의 본거지를 공략한 작전이 바로 9월 1일의 부산포 해전이었다.

왜군 2만여 명은 9월 24일 김해성을 출발하여 진주를 향하였다. 창원에 있던 경상우병사 柳崇仁은 창원 동쪽 露峴에서 2천여 명의 병력으로 왜군을 저지했지만 중과부적으로 창원까지 포기하고 진주로 후퇴하여 동문 밖에 진을 치고 있었다. 9월 26일, 威安에 도착한 왜군은 병력을 2개 제대로 나누어서, 10월 3일에 1만여 명의 선발대를 진주 동쪽의 馬峴으로 진출시켰다. 제1차 진주성 전투에 동원된 왜군의 병력은 <표 1>과 같다.

<표 1> 왜군측 병력

主 將	병력수(명)	비 고
長 谷 川 秀 一	5,000	
長 岡 忠 興	3,500	
木 村 重 茲	3,500	
加 藤 光 泰	1,000	
小野木縫殿助	1,000	
牧 村 政 玄	750	
岡本下野守重政	500	
糟 谷 内 膳	200	
太田小源太一吉	120	
靑山修理亮宗勝	미상	
長岡玄蕃之允	미상	戰 死
	5,000	各將의 聯合軍
合 計	20,570 이상	

왜군의 진주성 공격에 대비한 진주성 자체의 수성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 4월 22일 招諭使로 임명된 金誠一이 5월 15일 진주에 당도했을 때 진주목사 李璣은 背瘡으로 지리산 上院洞에서 避病中이었고, 곧 病死해서 진주성은 守城將조차 없는 상태였다. 당시 경상도 지역일대는 勤王軍의 차출로 진주를 포함한 우도 서부의 10여 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空城 상태였다. 진주성은 다른 성에 비하여 나은 상태로 오합지졸의 守城軍 1천여 명이 있었지만 병기와 군량은 고갈된 상태였다.⁴⁾

金誠一은 고성현령 金絢을 진주 수성장으로 差定하였고,⁵⁾ 加背梁權管 朱大清은 진주관(종5품) 김시민과 함께 진주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加德僉正 田應麟은 宜寧 鼎津에 보내 郭再祐와 함께 방비토록 하였다. 김시민은 군사를 수습해서 수천 명을 얻었고 前郡守 金大鳴 등을 召募官으로 삼아 6백명을 모집하였다. 또 성지와 병기를 수선하고 군량을 모으는 한편 군사를 조련하여 진주성의 군사력은 상당히 증강될 수 있었다.

이 결과 진주 수성군으로 5월 말부터 8월까지 진주성에 접근하는 왜군을 여러 차례 격퇴하였으며, 인근 지역인 泗川·鎭海·固城 등 3城 수복전에 참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주축이 된 군대가 김시민의 군대였고, 이 전공으로 김시민은 7월에는 진주목사로 승진되었다.⁶⁾ 특히 9월 초순에 진해전에서 적장 平小太를 체포한 공로로 10월에는 당상관인 通政大夫로 加資되었던 것이다.⁷⁾

김시민 군대의 위세를 인정한 의병장 金沔의 지원 요청에 따라 김시민은

4)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병진조의 김성일의 치계문 중에 「兵器一空」·「軍糧一空」으로 표현.

5) 同上.

6) 『선조실록』 권28, 선조 25년 7월 계미(26일)조에 ‘金時敏之事功 前後狀啓 極爲超卓 當急時陞擢’(以金時敏爲晉州牧使);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8월 무자(1일)조에 기록하고 있다.

7) 『선조실록』 권31, 선조 25년 10월 임진(6일)조에 ‘晉州牧使金時敏 前以本州判官 陞授本職 闕後 南來文報 力戰之中 時敏之功居多’.

9월 하순에 1천명의 병력을 이끌고 居昌에 赴援하여 金山(現金泉)·知禮 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웠다. 김성일은 8월 7일에 경상좌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경상우도 관찰사로 재임명되어 9월 19일 居昌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김시민이 金山에 赴援하러 온 사실을 알고 그를 다시 진주로 보내 수성에 전념토록 조치하였다. 김성일은 진주 수성을 중시했던 것이다.

왜군 2만명이 진주성을 포위하던 당시 진주성의 수성군은 3,800여 명 정도였다.⁸⁾ 이들 군대들을 소속 부대별로 각각 수비구역을 정하여 방위하도록 하였다. 성중에는 수성군 외에 노약자 포함 수만 명의 민간인도 남아 있었고, 이들도 수성전의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진주성의 수성군 병력배치는 <표 2>와 같다.

병사 柳崇仁은 왜군이 함안을 점령한 후에 왜군과의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진주로 철수하였다. 진주에 단기로 도착한 병사는 입성할 것을 요

<표 2> 조선 수성군측

직 함	주 장	수 성 군
晉州牧使	金時敏	中衛將
晉州判官	成守慶	동 문
昆陽郡守	李光岳	100명
前 萬戶	崔德良	舊北門(守城代將)
領將(軍官)	李 訥	舊北門
栗浦權管	李纘宗	南 門
軍 官	尹思復	
咸昌縣監	姜德龍	
合 計	3,800명(진주성민 수만 명은 별도)	

8) 『선조실록』 권29, 선조 25년 8월 갑오조에 金敬老가 7월경의 진주 수성군을 6천명으로 보고하였다.

청했지만, 김시민은 병사가 입성하게 되면 守城의 主將이 바뀌어 작전 지휘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입성을 거절하였다. 결국 병사 유승인은 진주성에 들어가지 못한 채 28세의 혈기로 泗川縣監 鄭得悅과 加背梁權管 朱大清 등과 합세하여 1천 5백명으로 왜군과 싸우다가 결국 대부분 전사하고 말았다.⁹⁾

이때 의병장 곽재우는 목사 김시민이 병사 유승인을 진주성에 入城시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감탄하기를 “이런 계책이 바로 진주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이는 족히 진주인의 복이다”라고 칭찬하였다.¹⁰⁾ 목사(정3품)로서 상급지휘관인 병사(중2품)의 입성을 거부한 것은 下剋上의 하나로 용납할 수 없는 비위이지만, 그러나 전투 상황하에서는 守城將의 권한이기도 하였다.

(2) 전투 상황

제1차 진주성 전투 경과에 대하여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일(10월 5일)

주전을 준비하는 정탐 활동일이었다. 왜군은 아침에 威安에서 魚束嶺을 넘어 班城倉을 불태우고 선봉대 기병 천여 명이 진주성 동쪽 馬峴 北峰에 진출하여 정찰하고, 申時(오후 3~5시)에 퇴각하였다. 김시민은 一箭一丸이라도 낭비하지 말 것을 훈계하였다. 龍大旗를 세우고, 성중의 老少 부녀자 까지도 모두 男裝을 시켜 위장하였다. 또한 척후병을 보내어 왜군이 진주성 동쪽 10리 지점의 臨淵臺 부근에 주둔한 것을 확인하였다.

9) 경상우병사 김성일의 被逮로 경상도 방위선이 무너지자, 난초부터 戰功이 있었던 함안군수 유승인으로 우병사를 삼았다.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8월조에는 鄭得悅로 표기되었고, 김시민은 사천현감과 합세하여 사천 등 3성의 수복에 성공하였다.

10)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10월 정해(1일)조.

- 제2일(10월 6일)

왜군의 본격적인 공성전이 시작되었다. 왜군은 주공을 3계대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1계대 1천여 명의 총수는 동문 밖 順天堂山 위에 진을 치고는 성중을 향하여 조총을 발사하였다. 다른 1계대는 동문 앞을 지나 鳳鳴樓 앞에 진을 쳤고, 나머지 1계대는 순천당산을 넘어 봉명루의 적과 합하여 한 진을 만들었다. 조공부대는 각 산에 둔踞해서 주공을 성원하였다. 왜군들은 각양 깃발과 가면을 썼고 전군이 일시에 크게 소리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왜군은 민가의 대문짝 등을 뜯어 와서 성 밖에 100보 지점에 늘어 세우고, 그 뒤에서 조총을 발사하였다. 또한 초가집을 헐어 버린 것으로 막사를 지었는데 6, 7리에 달하였다. 총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막사 주위에 밤새 불을 피웠다. 조선군의 炬火作戰으로 왜군들도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이날 저녁에 광재우는 심대승에게 군사 2백명을 거느리고 향교 뒷산에 올라가 호각을 불고 횃불을 들게 하였다. 의병장 최강과 이달도 각각 원병을 이끌고 산에 진을 치고 병사당 4, 5개의 횃불을 올리고 북을 치고 고함을 질렀다.

김시민은 김성일에게 전황 보고와 더불어 군기 보충을 요구하였는데, 김성일은 長箭 100여 部를 보내주었다.

- 제3일(10월 7일)

왜군은 하루종일 조총과 활로 공격했다. 진주성 주변의 민가를 모두 소각시켰다. 밤에는 아동을 시켜서 성 주위를 다니면서 외치기를 “경성이 이미 함락되었고 8도가 무너졌는데, 너희 새장 같은 진주성을 어찌 능히 지키겠는가. 빨리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다. 오늘 저녁 介山 아버지¹¹⁾가 오면

11) 『난중잡록』 권3, 정유 8월 15일조. 註에 “개산은 김해 사람으로 그 아버지가 임진란 초부터 적에게 붙어 적이 성을 함락시키는 계책으로 도왔다. 개산 아버지는 淸正軍이 咸陽의 黃石城 함락시에도 계책을 세웠다.

너의 세 장수의 목을 당장 깃대 위에 달 것이다”라 하였다. 왜군은 밤에 동문 밖 수백 보 되는 길이로 대나무를 엮은 竹編을 세우고, 그 안에 판자를 세운 뒤에 흙과 돌로써 층층이 쌓은 土壘를 성벽 높이와 같이 하여 그 위에서 총포를 발사하였다.

조선군은 하루종일 조총과 활의 공격을 막아냈다. 김시민은 저녁에 樂工을 불러 거문고를 타고 통소도 불게 하였다.

- 제4일(10월 8일)

왜군의 본격적인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왜군은 수천 개의 대나무 사다리인 竹梯로 성벽에 기어올랐다. 3층 높이의 山臺를 만들어 바퀴를 달아 밀고 들어오면서 조총과 화살을 성 안에 퍼부어 대는 壓城之計를 사용하려 하였다. 목사는 현자총통을 발사하게 하여 세 번 관통하니 퇴각하고 말았다. 왜군은 소나무 가지를 많이 쌓아놓아 이것으로 城濠를 메우고 竹編을 이용하여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계책을 세웠다. 목사는 이를 간파하고 화약 봉지로 불을 붙여 소나무 가지 더미를 모두 불태웠다.

조선군은 미리 준비된 震天雷와 蒺藜砲, 그리고 큰돌들을 비치하여 성에 육박하는 적을 치면서 화살을 아껴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자루가 긴 도끼와 낫을 준비하여 輪轉山臺를 파괴하였다. 가마솥을 많이 걸어 놓고 물을 끓여서 적의 머리위로 퍼붓게 하였다. 낮에는 성가퀴 안에 매복시켜 내다보지 못하게 하고, 풀로 활을 당겨 쏘는 형상의 허수아비를 성 위에 출몰케 하였다.

밤 2경에는 고성외의 조용도와 진주외의 정유정이 군사 5백명을 이끌고 각자 十字 幟를 켜고 남강 건너편의 普峴 위에서 호각을 부니 성내에서도 이에 호응하였다. 왜군은 북병을 강변에 보내 원군의 진로를 차단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 제5일(10월 9일)

주야로 계속된 총공격이었다. 왜군 2천여 명은 새벽에 단성 지역에서 분

탕질을 자행하였다. 그 중 일부는 단계현으로 향하였는데 두 곳에서 김준민에게 격퇴당하고 말았다. 다른 일부는 살천 방면으로 나갔다가 정기룡에게 쫓겨 저녁에야 회군하였다. 최경회와 임계영도 구원병을 거느리고 와서 왜군의 측면을 공격함으로써 왜군 공격을 견제하였다. 정유경도 푸평에서 사천으로 이동하면서 적을 견제하였다.

왜군은 총포와 활을 종일토록 그치지 않고 쏘았고, 흙을 날라서 土山臺 쌓는 일을 급히 서둘러 한 뒤 山臺에 올라 철환을 무수히 쏘아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성중에서 현지총통을 발사하여 세 번이나 죽편을 꿰뚫고 또 목판도 뚫어 한 화살이 적의 가슴을 관통해서 즉사시켰다. 이후로 적이 다시는 산대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다. 저녁에 진주에서 납치되었던 한 아이가 도망쳐서 新北門에 이르렀다. 적정을 물으니 “내일 새벽에 힘을 합하여 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였다.

• 제6일(10월 10일)

최후의 결전의 날이었다. 왜군은 4경 초(상오 1시경)에 각 막사에 불을 밝히고 짐을 싣고 나가서 거짓으로 퇴각하는 형상을 보여 우리 군사를 나태하게 한 연후에 불을 끄고 몰래 들어왔다. 4경중(상오 2시경)에 두 패로 갈라서, 한 패는 1만여 명이 동문의 새로 쌓은 성벽에 육박해 왔다. 각기 긴 사다리를 가지고, 혹은 방패를 지고, 혹은 향교의 제사지내는 대그릇을 쓰고, 혹은 명석을 잘라 머리를 싸고, 혹은 쭉대나 풀로 엮어 관을 만들어 矢石을 피하였다. 3층의 가면인형을 만들어 차례로 사다리에 오르게 하여 우리 군사를 속인 연후에 왜군은 성에 기어올랐고, 기병 1천명이 뒤를 돌진하였다. 탄환이 비오듯 쏟아지고 외치는 소리가 뇌성과 같고 적장은 말을 달리면서 칼을 휘둘러 독전하였다. 목사는 동문 北隔臺¹²⁾에서, 판관 성

12) 『鶴峰集』에 실려 있는 『馳啓晉州守城勝捷狀』의 초안이 되었다고 보는 『鶴峰晉州守城節次』란 사료에 근거해서 박익환은 北隔臺가 아닌 北障臺가 더 맞다고 보았다. 박익환, 전계 논문, p. 206.

수경은 동문 웅성에서, 궁시·震天雷·蒺藜砲·大石·火鐵·菱鐵·불붙인 짚·끓는 물 등 화력과 무기가 총동원되어 사력을 다해 방비하는 군사들과 함께 전투를 지휘하였다.

동문쪽 전투가 한창일 때에 1만여 명의 한 패가 구북문쪽을 공격하였다. 긴 사다리와 방패를 이용한 전격적인 登城作戰에 조선군의 수비가 일시 무너졌지만, 전만호 최덕량과 목사군관 이납·윤사복이 사력을 다한 전투 지휘로 흩어졌던 전세를 수습할 수 있었다. 동문 수성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노약남녀도 돌과 불을 던져 성중의 기와·돌·초가 지붕이 거의 다하게 되었다.

동방이 밝으려 할 때 왜군의 공세가 약화되자, 목사는 성 안을 순회검시 하던 중 왜적 한 명이 쌓인 속에 숨어 있다가 쏜 총탄을 왼편 이마에 맞고 치료중에 39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¹³⁾ 곤양군수 이광악이 대신해서 지휘관이 되어 북격대를 지키며 궁수를 거느리고 용전하여 雙牽馬를 탄 적장을 쏘아 죽였다. 장장 8시간이나 맹공을 감행했던 왜군은 辰巳時(상오 7시~11시)가 되자 더 이상의 공격을 멈추고 비로소 퇴군하였다.¹⁴⁾ 양군의 피해는 컸지만 왜군의 전사자가 훨씬 많았다. 왜군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

13) 김시민은 이 전공으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승진하였다. 1604년에 선무공신 2등에 올랐고, 1702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고 忠武公의 시호를 하사받았다. 순국일에 대해서는 10월 18일설과 12월 26일설이 있다. 10월 18일설은 『난중잡록』 권2, 임진년 10월 18일조에 근거하고 있다. 『연려실기술』 권15, 진주지첩조에 “시민은 탄환 맞은 뒤에도 … 이 달에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였다.” 12월 26일설은 李濡의 「諡狀」과 丁範祖의 「行狀」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로 『선조실록』 권31, 선조 25년 10월 갑진(6일)조에 통정대부로 품계가 올랐고, 『선조실록』 권32, 선조 25년 11월 정묘(11일)조에 비변사에게 右道 지휘관으로의 임명을 주청하였고, 『선조실록』 권34, 선조 26년 1월 병인(11일)조의 병력 보고에는 창원부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로 표현하고 있다.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10월 정해(1일)조에 “김시민을 경상우병사로 삼았는데 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10월 18일 진중에서 순국했는데, 적이 알까 염려해 상을 발표하지 아니해서 조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승급시켰던 것이다. 行喪이 함안에 이르러 우병사 승진 교지를 받았고, 12월 26일은 장례일로 추정된다.

14) 전계 김성일의 「解圍狀啓」에는 解圍 시점을 申時(오후 3~5시)로 기록하고 있다.

사자를 불로 소각시키고 퇴각했기에 실제로 斬級한 수는 30여 두에 불과하였다.¹⁵⁾ 왜군은 포로와 우마를 버리고 창황히 퇴각하고 말았다. 조선군은 장수와 군사가 지치고 응원군이 없어서 추격전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¹⁶⁾ 조선군은 6일간, 그 중 5일간은 주야로 전개된 왜군의 총공격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던 것이다.

3. 김시민의 군사전략

(1) 진주성의 거점방어전략

수도 한성이 왜군에게 失陷된 이후로 조선의 국가 대전략은 勤王軍의 활동을 통한 수도 수복이 지상과제였다. 이를 위한 통합군의 복상이 龍仁戰의 패전으로 좌절되자, 중국 東征軍의 출정에 의한 대반격전을 기대하면서 조선군은 왜군에 대한 공세전략보다는 방어전략에 의존하였다. 조선의 전통적인 방책은 淸野入堡策으로 山城에 의존한 방어전이 주였지만, 당시는 보다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군사적 요충지의 기존 성곽을 이용한 거점방어였다. 조선군이 방어해야 할 거점에 대한 인식은 인물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경상우도 招諭使 김성일은 호남 보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진주 수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이다. 김성일은,

15) 『부계기문』에는 갑오년의 강화시에 왜인이 말하기를 “晉城의 戰役에서 將官의 죽은 자가 3백, 군병의 죽은 자가 3만이니, 만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후에야 강화를 의논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과장된 숫자이지만 그 피해의 컸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16) 『난중잡록』 권2, 입진 10월 10일조에 『慶尙巡營錄』의 기록을 인용한 글에서는 召村驛까지 추격하다 돌아온 것과 김준민 부대는 함안까지, 최강·이달 부대는 반성까지 추격전을 통해 2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진주는 남쪽 지방의 巨鎮으로 兩道の 요충지에 위치하였으니, 이곳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일대에 보존된 여러 고을이 土崩瓦解되어 조석을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이 반드시 호남을 침범할 것입니다. 호남은 지금 勤王으로 인해 도내가 텅 비었으니 만약 또 적의 침입을 받는다면 더욱 한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睢陽 1군이 江淮의 보장이 된 것과 같으니, 오늘날 꼭 지켜야 할 곳입니다”¹⁷⁾

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임 감사 김수는 한성과 호남 진출의 길목인 금산을 중요한 거점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시민이 진주판관·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마치 진주성 방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 초기 군사활동은 김수의 전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무책임 내지 도피성 행동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시민은 김성일 지휘하에 이미 진주성의 방비에 대한 준비가 있었기에 진주성 수성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임란 당시에 수성전은 최선의 선택인가와 진주성은 과연 수성전이 가능한 성곽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쟁에 있어서 아군이 적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陣營을 굳게 수비하여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孫子は “적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대전하지 말고 수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¹⁸⁾ 그러므로 수성론은 적과의 정면대결에서 불리함을 인식하고 堅城守備에 의한 長期戰을 취함으로써 적군이 전력을 消耗시켜 중국에는 적을 퇴각시키는 작전이었다.

수성전의 여러 조건들은 크게 城의 堅固性, 방어기구의 具備, 糧食의 備蓄, 一致團結力, 救援兵의 존재, 유능한 지휘관을 들고 있다.¹⁹⁾ 이 조건들

17)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병진조.

18) 『孫子』 軍形篇 ‘知不可勝則守’. 鄭道傳, 『參峯集』 권7, 五守條 “敵兵이 精銳하면 守備하고 敵兵을 解弛하게 하려면 守備한다.”

19) 『武經節要』 권6, 守城法條 “有五全 一曰城隍修 二曰器械具 三曰人少而粟多 四曰上下相親 五曰刑嚴賞重加之”. 守城戰의 長期戰의 對備策에만 중점을 두어 守城民의 數에 있어서 少數 原則을 들고 있다. 또한 指揮官의 指揮力을 賞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은 동양 고래의 墨子가 제시한 조건들을 포함한 내용이기도 하였다.²⁰⁾ 이들 조건을 진주성 전투에 적용시켜서 진주성과 군량미는 대내적인 조건으로, 구원병 활동은 대외적 조건으로, 무기체계 준비와 일치단결력은 지휘관의 용병술의 몫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진주성에 의한 수성전략의 수립은 진주성의 견고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진주성의 축성에 대한 사적은 河崙의 「城門記」에 의하면 고려 禰王 3년(1377)에 舊基에 土築했고, 동왕 5년(1379)에는 石城으로 축성중에 왜구의 침입이 있었고, 왜구의 퇴각 후에 완성하였다.²¹⁾ 성의 규모는 둘레가 4,359척(약 1,356m), 높이 15척(약 4.7m)이다.²²⁾ 그 후 宣祖 24년(1591)에 경상도관찰사 김수에 의해 왜군에 대한 방비책으로 취약한 동쪽 부분을 加築하였다.²³⁾

김수는 성이 작음을 탓하여 동남쪽 한 모퉁이를 헐고 물이 끼는 진흙땅에까지 물려 새로 쌓았는데, 신축한 것이 완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물이 조금만 불어도 곧 찢려 찻는 듯 하였으며, 성이 넓고 낮아서 적이 도리어 높은 위치에 서게 되므로 지키기 어려운 형상이라는 것을 식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다.²⁴⁾

- 20) 『墨子』五十二 備城門篇에 수성책으로 성곽과 堦字를 잘 닦아 놓고 방이에 필요한 기구를 빠짐없이 갖추어 두며, 썰나무와 양식을 넉넉히 준비하고 상하가 서로 和親하며, 또한 사방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면 성을 지킬 수 있다. ... 그러므로 성을 지키는데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고 임금은 이 사람을 등용한 후에야 성을 지킬 수 있다 등 14개 조항을 들고 있다.
- 2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진주목 성곽조. 목사 金仲光이 완성한 성은 둘레 800보에 높이 3仞이었다. 『慶尙道續撰地理志』 晉州牧條에는 태종 원년(1401)에 석축한 것으로 되어 있다. 『大東地志』 晉州條에는 외성 2,650보에 내성 401보로 기록되어 있다. 『만기요람』 군정편 4 관방조에는 외성 10,330척에 내성 1,930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 2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진주목 성곽조.
- 23) 『정비록』 권1에서 김수에 의해 왜침에 대비한 성의 신축 또는 증축된 지역은 晉州 외에 永川·淸道·三嘉·大丘·星州·釜山·東萊·安東·尙州·左兵營·右兵營의 城이었다. 무리한 진행으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다.
- 24) 이로, 『용사일기』.

확장의 결과로 성이 넓고, 낮은 점과 축성지반이 약해서 장마철에는 붕괴의 위험성이 커져 오히려 수성전에 불리함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제2차 진주성전에 동문쪽 성곽이 붕괴된 사실로 인해 왜란 후의 修築時에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 外城과 內城을 축조하였다.²⁵⁾ 하륜은 진주성에 대하여 천험의 요새라는 평으로

“남쪽에는 험준한 절벽 아래 南江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절벽에 의지하며 菁川이 둘러싸다. 북쪽에는 3개의 못이 있고 성과 못 사이에는 塹壕를 파서 서쪽에서 동쪽을 돌아서 남강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서 그 형세의 장함이 一當百할 만하다”

라 하였다.

임란 직전에 동쪽 방향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성을 확장하고 동문 밖에 제방을 쌓아 城塹으로 삼았다. 동쪽 방향이 취약했기에 목사가 직접 방비했던 곳도 동문지역이었고, 왜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했던 지점이기도 하였다. “왜군의 침입을 3면은 험지에 의거하고 1면으로만 적의 공격을 받았기에 왜군의 함락은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金敬老의 판단은 이와 같은 진주성의 수성상의 장점을 말해주고 있었다.²⁶⁾

또한, 당시 병조참판 沈忠謙이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십만 대군의 포위 공격에 대하여 식량부족을 가장 염려했던 이유를²⁷⁾ 통해서도 진주성이 그만큼 신뢰할 만한 천험의 요새지로 인식한 점이었다.

“산을 의지하여 성벽을 쌓고, 강을 둘러서 垓字를 삼으니 하늘이 지은 힘 준함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²⁸⁾

25) 내성에 관련된 사항은 지승종의 전계 논문, p. 137의 주7) 참조.

26) 『선조실록』 권29, 선조 25년 8월 갑오조.

27) 『선조실록』 권40, 선조 26년 7월 무진조.

28) 정경윤, 『고대일록』 권1, 기사 6월 29일조.

라고 평하였다. 이와 같은 천험지로서의 진주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던 점은 첫째로 성벽의 높이가 낮다는 점이다. 진주성은 산성이 아닌 평지 읍성이기에 중국의 평지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를 평가한다면 기본적 조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²⁹⁾ 물론 이를 보완한 것이 核字의 건설이었지만 이 역시 요구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여기에 辛卯年(1591)에 보강 신축된 동편 성벽이 癸巳年(1593)의 장마로 붕괴되는 견고성이 문제점으로 노출되기도 하였다.

둘째로 평지의 孤城이라는 점이다.³⁰⁾ 진주성의 주변에 다른 읍성이나 혹은 산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위기의 상황에서 실제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근지역 수성군과의 連繫된 연합작전의 구상보다는 진주성 단독작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다.

셋째로는 성이 너무 광활하다는 점이다. 초기의 진주성이 협소하다 하여 동쪽 평지로 확장함으로써 수성에 취약하게 되었다. 성이란 작더라도 견고한 것을 위주로 삼는데 이와는 반대가 되어 대군의 침입에 저항하지 못한 것이다.³¹⁾

임란 당시 수성전을 대비한 진주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성곽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동쪽 성벽만을 하나의 취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제1차전의 승첩으로 인해 이를 입증시켜준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나 宣祖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29) 진주성의 높이는 15척(1618년 완성된 외성의 높이는 25척)으로 세종조의 都城의 높이 16~23척보다 낮았다. 『萬機要覽』 軍政篇 4 附關防總論 柳馨遠築城論條에서 평지성의 높이는 5丈(周尺 50척으로 약 10.4m) 이상, 호의 폭은 4장에 깊이는 2장 이상을 제시하였다.

30) 『제조변방지』 권3, 의병장 곽재우가 충청병사 황진에게 진주성 입성을 반대하면서 제시한 이유였다.

31) 『정비록』 권1, 『진양지』 권1 성곽조. “廳石城 … 癸巳陷落後 李守一移鎮于此 城機修築時以金眸所築甚廣 難於守禦.” 김수가 동편을 가축한 전체 성곽이 이수일이 수축한 성곽보다 더 넓었기에 성곽 둘레가 1만 척 이상이였다.

“적들이 성을 공격하는 기구는 매우 凶巧하여 평지의 성곽은 결코 보전할 수 없다. 진주성에 대해서도 내가 일찍이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고, 延安의 경우는 침공해 오는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진주의 장사가 어찌 연안보다 못하여 함락되었겠는가. 적이 만약 습격한다면 우리나라의 城池로서는 비록 지키고자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나는 안다”³²⁾

라고 한 것과 같이 평지성인 진주성의 방수는 불완전하였다. 그 이유로 옛날의 공성전에서는 雲梯·衝車·地道 등이 사용되었지만, 당시 왜군은 이들 장비 외에 山臺나 土樓를 만들어 성 안을 굽어보고 그 위에 방패를 설치하고서 조총을 난사하기 때문에 방수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평가로는 방수군의 3배 이하의 공성군에 대한 방수는 가능했지만 그 이상의 병력 규모나 혹은 수만의 대군에 대한 방수에는 한계가 있었다.³³⁾ 이러한 방수군의 열세한 조건이었기에 만약 1개월 정도의 장기전이 된다면 이 역시 수성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전의 수행을 위한 또 하나의 대내적인 조건은 군량미의 확보 문제였다. 1·2차 전투가 10일 이내의 단기간으로 종결되었기에 군량미 문제가 전쟁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진주성의 거점 방어전략에 대한 구상은 김성일로부터 시작되어 현실적인 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김시민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32) 『선조실록』 권53, 선조 27년 7월 계사조.

33) 『손자』 謀攻篇에서 “十則圍之 五則攻之 倍則分之 敵則能戰之 少則能逃之 不若則能避之”라 하여 전투원칙으로 攻者는 防者의 5배의 전력을 제시하였다. 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병력수에 있어서 공방의 비율을 2배 내지 4배의 우세론을 폈다. 이를 현대적인 연구방법으로 계량화시킨 인물이 T. Dupuy로 그의 『Understanding War(전쟁의 이해)』에서 고전적 전투의 공방의 비율로 3대 1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2) 외부지원군과의 상호협공책

수성군대 공성군의 전력대비는 외형상의 군사력에서 수성군이 1:5~6으로 열세하였다. 이 열세한 전력의 보완책으로 외부지원군의 활동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외부지원군에 의한 내부수성군과 연계된 상호협동체제의 구축은 적으로 하여금 전선과 작전에 혼란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외부지원군에 의한 掎角之勢의 형성과 挾攻戰의 수행은 진주성 거점전을 위한 보조적이고도 외적인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 작전은 古來로부터 지형과 결부시켜 脣齒掎角之勢 혹은 率然術이라 하였다.³⁴⁾

왜군의 진주성 공격에 대비해서 김성일은 주위의 관군과 의병들을 동원해서 진주성을 赴援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로 진주성 외곽에는 각지에서 부원해 온 관군과 의병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던 것이다. 외부지원군의 대략은 김성일의 「解圍狀啓」에 기술되어 있으며,³⁵⁾ 구체적 내용은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외부지원군의 구성과 병력은 <표 3>과 같다.

외부지원군은 수성군과 연합해서 분산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의 병력을 분산 대적하는 방책이었다. 분산작전은 수적인 열세로 인해 정면대결은 피하고 왜군의 측방이나 후방에서 소수의 결사대를 동원해서 기습적인 遊擊戰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야간에는 적군의 주둔지 부근의 여러 산봉우리에서 十字 횃불을 올리는 炬火作戰과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로 왜군의 휴식을 방해하는 攪亂作戰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외부 의병에 의한 지원병들도 동일한 작전을 수행해서 이 효과를 증진시켰던 것이다. 진주성의 내외군에 의한 상호 호응작전은 왜군을 挾攻할 기세를 보임으로써 왜군을

34) 『손자』九地篇에 理想的인 用兵術의 비유로 率然, 즉 常山の 뱀은 그 머리를 치면 꼬리가 반격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습격한다. 또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공격한다(故善用兵者 譬如率然 率然者 常山之蛇也 擊其首則尾至 擊其尾則首至 擊其中則首尾俱至).

35) 『선조실록』 권34, 선조 26년 정월 정축조의 김성일의 치계문.

<표 3> 조선의 외부지원군

직 함	주 장	병력수(명)	최근접지	비고(병력의 전거)
三嘉義兵將	尹 鐸	200	馬 峴	
草溪假將	鄭彥忠	100	馬 峴	
先鋒將	沈大承	100(200)	玉峯里	郭再祐軍(난중잡록)
全羅右義兵將	崔慶會	1,000(2,000)	晉州薩川倉	(난중잡록, 고대일록)
全羅左義兵將	任啓英	1,000	咸 陽	
僧 義 將	信 悅		丹 城	
晉州捍後將	鄭起龍		山淸薩川	
固城假縣令	趙凝道	500	晉 峴	
晉州伏兵將	鄭惟敬	300	沙 遷	
固城義兵將	崔 垞		網陳山	
固城義兵將	李 達		頭骨坪	
陝川假將	金俊民	500	丹溪·丹城	
합 계	3,700(4,800)명, 미확인지 병력수를 100~200명으로 추정시는 4,100~5,600명			

괴롭혔다. 특히도 야간에 왜군은 조선군에 의해서 逆包圍를 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로 인해 왜군은 장기적인 공성전을 전개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진주성을 중심으로 북면에서는 곽재우·심대승, 서북면에서는 최경희·김준민·임계영, 서면에서는 정기룡·曹敬亨, 남강으로는 河景海, 남면에서는 鄭惟敬·이달·최강·조응도 부대가 활동하였다. 이들의 유격전은 공성전을 펼치고 있는 왜군의 주위에서 왜군의 전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선 수성군의 수성작전을 돕는 상호협동작전이었다.

왜군의 본격적인 총공세는 10월 6일부터였다. 왜군의 공격은 필사적이었고 이에 대항한 조선군 역시 필사적이었다. 수성군은 총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세를 반전할 기회를 모색하였다. 왜군은 開戰 이래 10월 8일

까지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그날 밤부터 수성군은 외부의 지원군을 활용하여 안팎으로 挾擊의 勢를 형성함으로써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왜군은 주변의 의병을 공격하는데도 실패하였고, 또한 공격을 위한 병력 분산으로 공성전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자 다른 방책을 찾게 되었다. 왜군은 최후의 방책으로 거짓 퇴각전술로 성 안의 병력을 유인하는 奇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미 유인전술을 간파한 김시민은 오히려 방어 태세를 강화해서 차기 작전을 대비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군이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해서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계기는 외부지원군의 適時適地에서의 활동효과였다.

김시민은 진주성을 거점으로 하는 기본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수성전을 위한 성곽의 수축이나 외부지원병과의 협공체제 등의 완비 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진주성 거점전략의 수행을 위해 현실적으로 문제점의 제거나 도피가 아닌 이를 능동적으로 보완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그의 지휘전술 활동을 통한 여러 방책들로 나타났던 것이다.

4. 김시민의 지휘전술

(1) 治兵과 戰法

진주성 전투의 승인은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에서 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이 전투를 지휘통솔한 지휘관의 능력에서 찾아보기로 하겠다. 이 전투의 승패에 대한 최종적인 공과는 바로 지휘관에 계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은 신출귀몰의 신화적 척도가 아닌 전통적인 장수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겠다.

동양의 전통적인 지휘관의 덕목은 크게 智·仁·勇이었다.³⁶⁾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적에게 대처할 수 있고, 신의와 인자 및 위엄이 있어야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덕목을 진주성 전투와 관련해서 김시민에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적용시켜 보았다. 먼저 지모의 발휘로는 전투를 위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무기체계를 준비훈련시켰고, 전투중에는 열세한 전투력을 심리전 등 각종 전법의 응용을 통해서 전력을 상승시켰다. 다음은 인과 용의 덕목을 내면적인 인과 외형적인 용으로 보았다. 지휘관의 인과 용의 덕목은 병사들로 하여금 실제 전투행위에서 지휘관의 용병술로 나타났던 것이다.

당시 진주성의 둘레는 1만여 척으로 수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은 1만여 명인데,³⁷⁾ 당시의 수성병력 3천 8백명으로는 부족한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노소 부녀자까지도 동원해서 男裝을 시켜 수성군으로 배치함으로써 수성군의 부족을 충당했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 병력의 열세를 은폐하기 위한 허수아비와 같은 疑兵의 설치는 일종의 僞裝術이었다. 이와 같은 수성군의 盛勢는 공성군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김시민은 노약 남녀의 동원을 통한 수성병력의 위장과 「以逸待勞」의 작전을 통해서 왜군들에게 마치 持久戰을 대비하는 듯 보였다.³⁸⁾ 이렇게 되자 왜군은 진주성 공성전을 단기전으로 구상하여 전 부대를 6營으로 나누어 번갈아 가면서 주야로 공성전을 전개하였다. 왜군의 주야에 의한 부단한 공격전에 조선군은 지칠 수밖에 없는 고전의 연속이었다.³⁹⁾ 왜군 병력

36) 『손자』에서는 智·信·仁·勇·嚴을, 『六韜』에서는 勇·智·仁·信·忠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의 병서인 『武臣須知』에서는 信·勇·嚴·智·仁이다. 『中庸』에서는 보다 기본적인 智·仁·勇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37) 『만기요람』 군정편 4 관방 경상도조에서 진주 내성은 1,930척, 외성은 10,330척이다. 『風泉遺響』, 『登陴持掌』에서 수비병은 2교대로 1壕에 8명, 1丈(10척)에 10명이 소요되는 매 척당 1명 수준이다.

38) 『吳子』 治兵篇의 '以近待遠 以佚待勞 以飽待饑' 참조.

39) 朴東亮,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四. "分兵爲六營 更進迭出晝夜不休."

2만명을 6영으로 나누게 되면 1영은 3,300여 명이 된다. 이 병력을 1일 6교대, 즉 매 계대는 충분히 휴식한 연유에 1일 4시간씩 공성전을 전개한 후에 다음 계대로 교대하였기에 왜군으로는 효율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수성전의 병력과 대등한 병력이었기에 4면 공격이 아닌 1면에 대한 공성전의 선택은 외형적으로는 공격의 원칙을 준수한 것처럼 보인다.

왜군은 병력의 절대적 우세로 인한 자만심으로 전면에 걸친 총공격전이 아니라 일측면에 대한 逐次的인, 즉 波狀 공격작전이었다. 일측면이 실패하게 되면, 다른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공격하였다. 이는 공격에 대한 집중의 원칙을 무시한 공격력의 분산을 초래하고 말았다.

특히 왜군은 진주성 공격을 위한 前哨戰으로 보여졌던 露峴 전투와 昌原城 전투에 이어 咸安城 전투나 진주성 외곽 전투 등에서 모두 하루 내지 이틀 작전으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왜군은 진주성 전투에서도 막연한 승리감에 도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기를 수선하고 군량을 모으는 한편, 군사를 조련하고 城池의 결함을 보완하는 등 수성전에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김시민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점은 무기체계였다. 물론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서도 왜군에 대한 절대적 열세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일반적인 수성론자들이 추구하는 장기전을 위한 군량미 확보보다는 병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전투에서의 승패의 결정은 오직 상대방에게 얼마나 치명상을 입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고 이의 주체를 무기체계로 여겼다. 이 결과로 당시 진주성 전투시에 군량미 확보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조정에서까지 염려한 것은 성곽이나 병력 및 병기가 아니라 바로 군량미 문제였던 것이다.⁴⁰⁾ 후일 2차 진주성전에서는 장기전의 대비책으로 군량미 확보에 관심이 컸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다.⁴¹⁾

40) 『선조실록』 권29, 선조 25년 8월 갑오조.

41) 2차 전시에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 26년 6월조에 “김천일 등이 성안을 점검해 보니 倉穀이 매우 많았으므로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이만하면 함께 지키기에 충분하

김시민은 수성전의 준비로 먼저 焰燄 150여 근과 倭制를 모방한 銃筒 170여 자루를 제작하여 병사들을 훈련시켰던 것이다.⁴²⁾ 여기서 煮取된 염초로 유향과 柳灰로 合製하면 약 200근의 화약량이 된다.⁴³⁾ 당시 새로이 제조된 총통은 조총이 아니었고, 승자총통 계열에서 가장 발달된 소승자총통이었을 것이다.⁴⁴⁾

진주성의 조선군 화력은 왜군에 비해 크게 열세한 수준이었다.⁴⁵⁾ 왜군의 개인 휴대무기인 조총은 조선의 소승자총통에 비해서 성능이 우세하였다. 또한, 왜군 조총 휴대량은 20%의 무장 비율로 3제대 중의 1제대에도 1천여 명의 조총수가 있었던데 비해, 진주 수성군은 1백여 명의 총통수에 불과한 실정이었다.⁴⁶⁾ 수성군의 이 열세를 현자총통·진천뢰·질려포 등 다

다’ 하고 당일로 군사를 나누었다.” “대저 진주성은 이미 누차 승전하여 홀로 온전하게 지켜냈고 곡식 10만 석을 비축하여 일면의 보장지가 되었으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 42) 『학봉집』 권3, 『馳啓晋州守城勝捷狀』과 『燃藜室記述』 권15, 晋州之捷條의 내용이다. 그러나 『난중잡록』 권2, 임진 10월 10일조에는 염초 510여 근과 총통 70여 자루로, 『海東名將傳』에는 염초 150근과 총 70여 자루로, 『진양지』 권4, 고직 임진지란조에는 염초 150근과 조총 70여 자루로 기록되어 있다. 임란 직전에 조선이 보유한 화약량은 27,000 근이었다(『서애선생문집』 권16, 『記火砲之始』).
- 43) 李暉, 『화포식언해』, 『劑藥法』에서 화약의 비율은 焰燄 10근에 石硫黃 10냥과 柳灰 2근 8냥 및 斑猫(곤충류) 4.5돈이다. 염초 150근으로 합제하면 약 200근(197근 5냥)이 되고, 염초 510근은 약 671근(670근 13냥)이 된다.
- 44) 조선에서 조총의 제조 및 사용법이 전수된 것은 선조 26년 2월이었고(『선조실록』 권35, 선조 26년 2월 을미조), 1593년 9월 14일에 이순신 휘하에서 제조에 성공하였다(『난중일기』 선조 26년 9월 을축조). 소승자총통은 執放에 편리하도록 총신을 감싸는 개머리판인 粧家, 즉 銃家를 부착하였다. 장가가 부착된 소승자총통은 외형상으로 조총과 유사하였다. 점화법이 승자총통은 指火式이었고, 조총은 火繩式으로 발화시간이 짧아 명중률이 높았다.
- 45) 200근의 화약으로는 절제된 화력전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화약을 물 쓰듯이 썼다”(用火藥如水)라는 표현은 절제중에 화력을 집중시킨 화공전을 의미하고 있다.
- 46) 『학봉집』 권3, 『치계진주수성승첩장』에서 順天堂 공격부대의 왜군 총수가 1천여 명이었다. 『선조실록』 권32, 선조 25년 11월 정묘(11일)조에 김시민이 거느린 포수가 80명이었다.

양한 화기류로 보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시민은 전반적인 화기 수량과 화약량의 부족을 적절한 화기의 통제와 집중사격의 활용을 통해서 그 효용성을 극대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화기 이외에도 전통적인 공술의 활용은 물론 돌, 불붙인 짚, 끓는 물 등의 재래식 무기까지도 총동원했던 것이다.

왜군 공성전에 있어서 조총의 엄호사격만에 의한 공성장비의 투입은 한계가 있었다. 성벽을 공격하는 병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기본적인 장비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무모한 공성전을 전개한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실패의 교훈으로 2차 진주성 전투에는 왜군이 성벽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가죽으로 뒤집어 씌운 龜甲車를 제작하여 투입하기도 하였다.

김시민은 저녁에 樂工을 불러 거문고를 타고 통소도 불게 하였다. 흔히 이와 같은 한밤의 한가롭고 여유 있는 행위는 수비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왜군에게는 향수병을 자극해서 전의가 꺾이도록 작용했을 것이다.⁴⁷⁾

전쟁에서의 심리전의 영향은 대단히 커서 일순간의 풍문으로 인해 삼시간에 전의가 상실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기가 오르기도 하는 것이다. 심대한 공격을 받았던 성곽에서 야밤에 들려오는 음악 전술이나 혹은 외부 응원군에 의한 호각과 횃불작전 등은 왜군에게는 충격적이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증대시켰을 것이다.

또한 전투란 병사들의 용기로 하는 것이다. 공성부대의 초전에는 용기가 왕성하지만 몇 번의 공격 후에는 점차로 피로에 지쳐 그 銳鋒이 무뎠어지게 되는 것이다.⁴⁸⁾ 수성군은 결코 맞대응하지 않고 왜군의 기운이 쇠하기를 기다린 후에야 대응하는, 즉 「以逸待勞」의 작전을 전개하였다. 왜군은 주야로 제대를 나누어 공격했는데 이 작전에 그대로 대응하게 된다면 조선군은 하루 이틀만에 그 기력이 탈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왜군이 야간에 조선인

47) 楚霸王 項羽의 '四面楚歌'의 故事를 역으로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48) 『武臣須知』 권3, 陣法 心氣條.

포로 아동들을 이용한 童謠作戰은 수성군 내에 流言蜚語로 번지게 하여 더욱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였다. 그런데도 조선 수성군은 왜군의 다양한 심리전에는 전혀 맞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無力化시켰던 것이다.

왜군은 다양한 신형무기와 새로운 작전으로 수성군의 대응을 작전에 다양한 奇計를 구사해서 수성군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왜군은 대병력과 화력에 의한 주야간의 위협작전으로 단기간에 성공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김시민은 공성군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智謀의 다양한 작전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곤 하였다. 그는 왜군이 최후의 술책으로 사용한 후퇴 기만술에도 사전의 탈출자를 통한 첩보에 의해서 왜군의 역공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그의 수성군 작전의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인 전술로 대응하자 오히려 왜군의 작전은 혼란에 빠지거나 아예 작전을 포기하고 말았다.

(2) 用兵術

조선군은 병력수와 무기체계에 있어서 왜군에게 크게 열세하였다. 이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전투중에 발휘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敢死心을 발휘케 한 김시민의 용병술의 결과였다. 이 감사심의 발휘는 한편에서는 上下和親과 軍民一致를 통한 내면적이고도 자발적인 힘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不退戰의 용맹성을 나타나게 하는 군령의 엄함을 통한 외형적이고도 피동적인 힘인 것이다. 이 양자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필요한 조건들이다. 이상적인 조건은 내면적인 용기를 기초로 해서 외형적인 용기로 행동화될 때에 상승적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진중에 선비들이 많아 선전하기 쉽고 行在所에서 멀지 않아 소식이 잘 통한 데다가 廷籟의 평상 聲望도 있어 역시 인심이 북돋았으므로 그 공

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時敏은 단지 말은 군사만 거느렸고 응원병이 심히 적었으며, ... 49)

李廷穉이 延安城 전투에서 승리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심의 복종인데 이것은 평상시의 聲望에 의한 것이었다. 김시민은 武官이었기에 이정암과 같은 내외의 성망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5월 이후로는 그가 통솔한 군세는 비록 1천여 명에 불과하였지만, 그가 사졸들과 더불어 同苦同樂을 통해서 軍心을 얻어 연전연승의 상승 정예군이 되었기에 그 명성이 외부에까지 알려졌던 것이다.⁵⁰⁾

이들 常勝軍만이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상승군이 주축이 되어 여기에 합세한 의병을 물론하고 진주성민까지도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軍民一致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¹⁾ 대왜전의 승패가 바로 죽기를 달게 여기는 上下一體의 군사에 달렸던 것이다.⁵²⁾ 이와 같은 군심의 연음 즉 민심의 획득은

49) 『연려실기술』 권15, 晋州之捷條.

50) 『난중잡록』 권2, 임진년 8월 9일조에 “時敏與士卒同甘苦 爲死守計 … 三城連復 軍聲大振 至是爲敕使 金沔聞時敏得將士心 使之領兵來援 時敏卽率精兵千餘 馳赴居昌.”

51) 『손자』 始計篇에 “道者令民與上同意 可與之死 可與之生 而不畏危也.” 김시민은 죽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노약자들을 그대로 死地로만 내몰 수 없었던 고민도 있었다. (10월) 8일에 “아마도 성을 온전하게 하기가 어려울 듯 하니 물레 水門을 열어서 노약자를 내보내야겠다”고 하자 이광악이 “이와 같이 하면 군사들의 마음이 크게 변하여 성을 수호할 수 없다”고 말리자 이를 옳게 여겼다(『선조실록』 권34, 선조 26년 1월 정축(22일)조).

52) 『부계기문』과 『國朝人物考』 및 『재조변방지』 권3에는 2차 진주성전의 패배를 예언한 老妓의 말에서 1차 전사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전일에는 병사의 수가 비록 적었으나 장수와 군졸이 서로 사랑하였으며, 호령이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지금은 병사의 통솔함이 없을 뿐더러 장수는 병사를 알지 못하고 군사들은 장수를 의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심합니다.” 『난중잡록』 권2, 계사년 5월 24일조. 전라좌의병장 任啓英의 상소문에서 왜를 방어하는 방책으로 군량, 기계, 적에게 죽기를 달게 여기는 戰士였다. 『吳子』 治兵篇에 ‘天下莫當 名曰父子之兵’이라 하여 천하무적의 군대를 부자지병이라 하였다. 부자지병이란 지휘관이 부하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부하는 상관을 부모처럼 존경하여 상하일체로 굳게 뭉친 군대를 말한다.

“天時는 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人和만 못하다”⁵³⁾라는 동양의 전통적인 전쟁론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다.

전투현장과 같이 사생결단의 극한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사기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진작시키는 것은 첫째로 상벌이 엄하고 명령이 도리에 맞아야 한다. 둘째는 정예병을 가려 뽑고 노약자를 참여시키지 않아야 한다.⁵⁴⁾ 유사시에 지휘관의 호령과 명령에 따라 한몸처럼 움직인다면 효과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진주성 전투 직전에 병사 유승인의 입성을 반대한 것도 일사불란한 명령지휘 체계가 무너질 것에 대한 염려였던 것이다.

김시민은 임란 1년 전부터 호족이 많았던 진주에서 관관으로 “덕을 베풀어 위엄을 행하여, 아전을 단속하고 백성은 사모하여 잘 다스리는 본을 보였다”⁵⁵⁾라는 평은 평소의 상벌과 명령준수가 엄하고 공평하게 수행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마침 성 안에 있었는데 성을 고수할 계획을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성을 버리고 달아날 생각을 하니, 시민이 죽기로 싸울 것을 군중에서 맹세하고, 감히 떠난다고 말하는 자는 목을 베라고 호령하였다. 그리고 경내의 士民들을 수습하여 入城시켜 남녀를 섞어 行伍를 짜고 기계를 설비하고 기치를 세웠는데, 적이 성 아래까지 몇 겹으로 포위하니 형세는 새알을 깨는 것과 같았다. 시민은 그 아내와 함께 친히 酒食을 가지고 성을 돌아다니며 군사들에게 먹이고 밤낮없이 분투하니,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죽기로 싸웠다”⁵⁶⁾

53) 『孟子』公孫丑章句下 一,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54) 宋奎斌, 『風泉遺響』登陴指掌.

5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진주목 학교조에는 河濱의 記略에 “토지의 비옥함과 인물의 繁華함이 탄 고을과 견줄 바가 아니었다.” 『부계기문』의 김시민에 대한 평이다. 후임 목사 徐禮元에 대해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10월 정해(1일)조에서 “서예원은 완력은 있으나 어리석은 겁쟁이로 재능이 없는데, … 이때부터 진주성의 수비는 다시 전일과 같지 못하였다”라는 평과 대비된다.

라는 표현과 같이 지휘명령 체계는 하루아침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백성과 군사들에게 인심을 얻었던 결과로 이 위기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명령준수는 병기의 효과적인 사용에 필수적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한 리를 지키는 것은 한 길을 지키는 것만 못하고, 한 길을 지키는 것은 한 자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이는 적이 멀리 있을수록 병기의 위력이 감소되고, 가까이 있을수록 위력이 커진다는 뜻으로, 장병기를 단병기로 활용하면 그 효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종전의 일반적인 수성책은 원방에서부터 적에게 맹렬한 위협사격을 가하게 되면 이에 위협을 느낀 적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란시의 왜군에게 적용된 이 위협은 수성책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적의 공격에 맞대응해서 수십 보 밖에서 矢石과 화기를 함부로 발사하면 적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모든 방어장비를 근접거리에서 사용함으로써 살상력을 배가시켰던 것이다. 지휘관의 절제되고 통제된 명령에 따라 최근접거리에서 병기를 사용함으로써 살상력을 증대시켰다. 이와 같은 방책으로 수성군의 열세한 병력과 무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김시민 군대의 용기는 승리한 군대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였다. 그의 수성군 중 1천명의 병사는 이미 5월부터 泗川·鎭海·固城 등 3성의 수복전의 주역이었고, 金山 전투에서의 승리를 경험한 정병이었다. 이들 정병이 가장 취약지점인 동면 수성을 담당했던 것이다. 노약자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오직 후방 지원업무를 주로 맡겼다.

이상과 같이 김시민은 진주성에 대한 거점 확보를 위한 수성전략에 따라 인근 지역의 지원군과의 연계된 상호협력의 기각지세를 형성하는 전략을 수행하였다. 그는 전투 중반 이후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전세를 유리하게 운용하였다. 그는 단기전을 예상하면서도 적에게는 지구전으로 誤

56) 『재조변방지』 권2.

導시켜 속전속결의 波狀攻擊으로 소모전을 강행시켰고, 현장에서는 적절하고도 다양한 智謀의 전법으로 적의 계책을 혼란시키거나 무산시켰다. 또한 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하 장병들이 있었고, 다양한 무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무기체계의 열세를 극복함으로써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군의 진주성 전투에서의 대첩은 우연이 아니고 이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전에서 이를 지휘통솔한 지휘관인 김시민 장군과 이 명령에 따라 그대로 따른 부하 장병과 진주성민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낸 필연의 합작품이었다.

5. 맺 음 말

호남은 조선 왕조의 祖上地인 全州가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을 방위하는 것이 조선군으로서는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였다. 임진왜란시 진주성은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호남 보전전략은 경상도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의 주공을 분산시키는 방략으로, 왜군의 주공과 군사적 거점에서 정면대결을 벌인 전투가 진주성전투였다.

왜군으로서는 수륙병진책이 실패하면서 육상 진출로를 모색한 것도 진주성에 대한 점령작전이었다. 왜군의 공격을 막기 위한 진주성의 수성책은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책을 관관에서 승진한 신임 목사인 김시민이 맡게 된 것이었다. 수성의 기본인 진주성은 흔히 험한 지세를 이용한 축성과 주위의 강 및 垓字의 설치로 難攻不落 혹은 金城湯池의 天險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는 임란 이전의 소규모의 왜구 침입에는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임란과 같은 신병기로 무장한 대병력의 총공격을 막는데는 기존의 진주성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진주성은 호남 진출의 관문으로 거점전략상 수성이 요구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진주성은 평지성이나 다름없어서 적의 대규모 포위공격에는 취약하였다. 김시민은 진주성에 대한 수성전 전략으로 진주성 단독작전의 한계를 인식해서 인접 거점과의 상호 연계된 기각지세인 협공작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또한, 김시민은 병력과 무기의 열세를 그의 탁월한 지모와 용병술을 통해서 극복했던 것이다. 먼저 준비책으로 화약과 신병기를 제조해서 이로써 훈련을 시켰고, 수성군의 절대적 부족은 부녀자까지도 남장시켜서 이를 보충시켰다. 왜군의 다양한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해서 대응토록 하였고, 약기나 호각 및 횃불 등을 이용한 위장술과 심리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조선 수성군은 그들 전력의 5배 이상인 왜군을 상대로 6일간에 걸친 주야간의 파상공격을 막아낸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관군과 의병 및 진주성민들이었다. 김시민 지휘하의 이들이 전장터에서 上下一致 및 軍民一致를 이룬 것은 관관시절부터 자애를 베풀고 위엄으로 닦은 결과였던 것이다. 다양한 전통무기와 신병기는 물론 각종 재래기구 등도 수성장비로 총동원되었다. 그러나 수성군은 전반적으로 무기체계상에서 열세였기에 이를 사용함에는 통제하고 절묘한 운용을 통하여 그 효력을 극대화시켰던 것이다.

김시민의 진주성 戰功은 군사적으로 조선 관군에게 만연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왜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시켜 준 점이다. 또한 이 승전은

“대개 온 나라가 붕괴된 나머지 한 사람도 감히 성을 지킬 계책을 못하였다. 그런데 목사는 홀로 능히 외로운 성을 굳게 지켜서 外援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능히 대적을 물리쳐서 한 道를 보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호남을 보호하여 적으로 하여금 內地에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으니 목사의 공은 이

로써 심히 크다”⁵⁷⁾

라는 평가와 같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상도 전체를 보전시켜 주었고, 나아가 당시 왕조의 근본이자 국가 경제력의 寶庫인 호남을 지킨 것으로 전쟁중이나 전후에 걸쳐 국력 회복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3대첩에서, 충무공의 한산대첩이 하루 동안의 격전이었고, 忠莊公의 행주대첩도 단 하루만의 혈투였다. 이에 비해 김시민이 지휘한 진주성전투는 6일간에 걸친, 民·軍이 총동원된 死鬪로서 조선의 生存과 名譽가 달린 민족사의 대결전이었다.

(원고투고일 : 2004. 3. 10, 심사완료일 : 2004. 4. 1)

주제어 : 김시민, 진주대첩, 거점방어전략, 상호협공책, 군민일치(軍民一致)

K C I

57) 『학봉집』 권3, 「치계진주수성승첩장」, 『난중잡록』 권2, 임진년 10월 10일조.

<ABSTRACT>

Strategy and Tactics of Kim Si-Min in the Glorious Chinju Campaign

Kang, Sung-Moon

The Japanese army made an assault on Chinju fortress in October of 1592 for six days and nights. But the Korean army led by General Kim Si-Min achieved a heroic defense. Unfortunately, Commander Kim was killed by a hidden enemy shot near the end of the battle. He was only 39 years old. What was the cause of the victory of this campaign?

Kim Sung-Il, who was an official leader of Kyungsang province had ordered General Kim the defensive strategy for Chinju point which had defended Cholla province safely. Therefore, General Kim operated this strategy successfully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e emphasis on pincers military operations was affected by the guerrilla patriotic leaders around Chinju. Guerrilla forces sprang up all over the country.

Kim Si-Min had energetically set about producing gunpowder weapons of various kinds and training his troops. Commander Kim, having completed his preparations, posted an army of 3,800 to defend Chinju fortress. He used all kinds of weapons and equipments which were Hwuynja-cannon and small gun, sword, spear, arrow, stone, hot water, torch, whistle, drum, reed, shout, and etc. Also, he took the initiative on the battleground to apply camouflage and psychological tactics to Japanese offense.

All classes of people(e.g. civilian and volunteer, army) who were in perfect union fought with a force five times their number. Korean forces

under Kim Si-Min were commanded at the risk of their lives according to strict rules. His soldiers only fired at the nearest enemy, so they could save arrows and gunpowder for more killing. His army was called as ever victorious army that is, ironside whenever they fought against the Japanese troops at Sachun and Kimhea, Keumsan battle.

The successful defense of Chinju occupies a special place among the three great Korean triumphs of the War(Imjin-Waeran)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Moreover, the fact that the fatherland of the Chosun dynasty and the grain-rich region of Cholla province remained safely in Korea's hands is also because of Commander Kim's superior leadership.

Key Words : Kim Si-Min, Glorious Chinju Campaign, Defensive Strategy for Point, Pincers Military Operations, Co-operation of the Fighting Forces and the Civilians

K C I